

행복을 찾아가는 낯선 길에서

삼성냉동쇼케이스 박인석 과장

박인석 씨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의 관심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짐치럼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학에서부터 컴퓨터까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은 너무나도 많다. 새로운 것을 익혀가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박인석씨를 만나 그의 인생이 즐거운 이유를 들어보자.



박인석(34) 씨를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하자면 도리없이 장황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쇼케이스 제작업체인 삼성냉동의 과장이라는 직함 하나만으로는 어쩐지 그를 영 판판으로 소개한 듯한 미진함이 가시질 않는다. 한 마디로 특징 지우기 어렵다는 것 만큼 그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없을 듯 하다.

그렇다고 그의 이력에 현란한 수식어나 묵직한 직함이 따라 다니는 것도 아

니다. 박인석 씨는 그저 13년 경력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계 제작에 일가견을 갖게 된 평범한 엔지니어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의 진면목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모호(?)해 보이는 이유는 그의 관심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짐치럼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3년 경력의 기계 제작 노하우

벧사람하면 작열하는 태양에 검게 그

을린 구리빛 피부가 연상되는 것처럼, 용접 불꽃이 어지럽게 훑날리고 두꺼운 철판을 자르는 소음으로 가득 찬 기계 제작소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날도 박인석 씨는 주위의 시끌벅적한 소란 따위엔 이미 익숙해진 듯 공장 한켠에서 용접봉을 손에 쥐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일주일 뒤에 납품할 주문 쇼케이스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최근엔 용량은 물론이고 점포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주문 쇼케이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제품보다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야 하지만 전시 효과가 뛰어나죠. 생산 인원 6명이 판금, 용접, 마무리 작업을 분업하고 있는데 설계를 거쳐 외장이 결정되면 모두가 눈코 뜰새 없이 움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한달 평균 50여대를 생산했었는데 요즘 들어 주문이 많이 줄었어요.”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꼬마들까지 무슨 유행어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IMF 환파’가 여기라고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가격이 최고 200%까지 올라 최근 들어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제과점을 상대로 곧이 곧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어 생산 책임을 맡고 있는 박인석 씨는 나름대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비용 절감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자연히 좋

은 제품을 만들려는 의욕도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네요. 경기가 빨리 풀려야 할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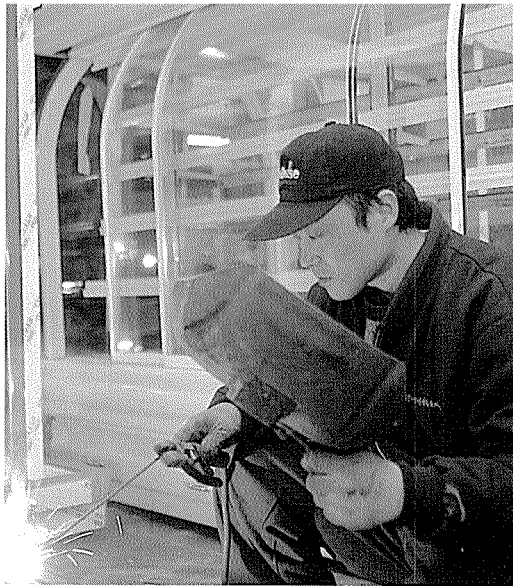
한창 때 야간 작업까지 해야할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삼성냉동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어쩔 수 없이 기계 가격을 인상한 다른 업체들이 판매량 저하로 더욱 휘청거린다는 달갑잖은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수작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 제과기계 시장에서 그나마 삼성냉동은 박인석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알차게 다져놓은 기술 기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침술에 흥미 느껴 5년째 독학

그가 쇼케이스나 냉동·냉장기 못지 않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침술을 포함한 한의학 분야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5년전 부터 독학으로 계속해온 침술 공부 가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니다. ‘한문 실력이 짧아’ 원서 대신 한글 번역본을 교재로 공부하는 게 이쉽지만 이제 간단한 소화 불량 썩은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게 본인의 솔직한 자기 진단. 처음엔 책을 펴놓고 자기 몸에 직접 침을 놓아 가며 침술을 익히다가 공부 가 좀 진척된 뒤로는 애꿎은 동료 직원들을 생체실험에 동원하느라 공포(?)에 떨게 했었다며 못내 겸연쩍어 한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생기질 않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볼까 생각 하게 된 것도 요즘 들어서다.

“한의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예요. 원래는 동양학에 심취했었는데 그 근원을 찾다보니 자연히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거죠. 공부가 계속될수록 막연하게나마 어떤 본질에 접하게 되는 것 같아 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쯤되면 그를 만나기 전, 막연히 무뚝뚝한 성격일거라 지레 짐작했던



↑ 주문 쇼케이스를 제작하고 있는 박인석 씨. 경력 13년의 노하루를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선입견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만다. 취미의 차원을 넘어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독학(獨學)이란 어지간한 인내심이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든 학습법이다. 여느 한의대생처럼 체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그 역시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 동호회 ‘한의과대 학생 모임’을 자주 방문한다. 사상의학이니 경혈이니 하는 용어들이 낯설지 않은 이 가상 공간에는 박인석 씨처럼 동양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녁마다 열띤 토론을 벌인다. 그럴 때면 평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말도 못꺼내는’ 세상살이의 온갖 궁금증들이 그에게 가장 매력적인 화두(話頭)로 다가오곤 한다. 엔지니어와 한의학이라는 이질적인 두 개의 중심축은 이제 분명 박인석 씨에게 뺄을 수 없는 생

↓ 침술을 익히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직접 침을 놓은 적도 많았다. 기계 제작을 담당하는 공장 식구들은 그와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낸다.



활의 일부분이다.

“웬만큼 기초 이론이 쌓이고나면 기(氣) 철학자 김용옥 교수가 운영하는 도올서원에도 나갈 생각이에요.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길러보고 싶은 거죠”

새로운 분야 공부하는 것이 행복 담배나 술을 그리 즐기지 않는 박인석 씨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또 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인데 이것 역시 몇년 전 독학으로 시작해 지금은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짤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이것저것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덕분이다. 낯선 분야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고개를 가웃거릴 게 틀림없지만 그에게는 이런 과정이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생활의 보람이다.

“앞으로는 또 무엇에 흥미를 느끼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공부일 거란 사실이죠. 무조건 돈과 명예 따위를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공부는 재미 없어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머잖아 자신을 쫓 빼닮은 아이들을 낳고, 알콩달콩 살며 늙어 간다는 것? 어쩐지 박인석 씨는 그런 생활이 자기가 바라는 인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엔 그저 지금처럼 직업과 취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저마다 인생의 목표는 제각각이다. 박인석 씨가 구태여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그가 찾으려 하는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길이 낯설지 않다. [E]

〈글/이종원〉